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 비전 정립 및 구체적 역할과 기능 모색을 위한 워크숍』

토론 회의록 (2014.09.25.)

정희성 사무처장 : 충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와 관련하여 3분의 발표를 들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워크숍의 요지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하는 모임인 것 같습니다. 새로 조직을 만든다고 했을 때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와 관련해서 몇가지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토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충남도,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직하고 국가 간의 조직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직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더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냐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비전과 기능이 뭘텐데요, 아까 한찬동팀장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기후환경연구소란 말이죠, 기후변화보다는.. 기후환경연구소이고 업무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후변화였다가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금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및 물 통합관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전과 기능을 검토할 때 상당히 많은 의견들을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연구소가 지금 충남발전연구소의 부설로 센터로 조직관리 상황을 저희가 이제 연구소에 센터의 조직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만들어 지는 것이 좋을지 또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박주택사무처장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조직이 굴러가려고 하면 예산이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에 관한 것들도 좀 이야기 되어야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설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상으로 5분의 지정토론이 있는데 시간이 바쁘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이 먼저 토론을 하겠습니다. 조영탁 교수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영탁 교수님 :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는 제 분야도 잘 모릅니다만 어떻게 토론을 해야할지 걱정이긴 한데, 우선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충남도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의미를 찾는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 자체가 기후환경연구소이지 않습니까, 기후하고 환경을 나누어서 봤을 때, 기후 측면에서 봤을 때 크게 2가지 입장은 완화 측면과 적응 측면이 있는데 완화측면에서 봤을 때도 충남이 굉장히 기후부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전문적인 기관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co2 발생량의 85%가 에너지에서 나오고 에너지 산업이 전력입니다. 최근에 발표에 따르면 2°C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전력이죠. 모든 에너지가 전력으로 바뀌게 되면 모든 전력이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화력발전소에서 나오게 되면 아시다시피 거의 50%, 2배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완화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전력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충남에 화력발전이 거의 50% 몰려 있습니다. 충남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도 전문성을 가지고 파고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완화의 측면에서.. 또 하나 수요의 측면에서 최근의 추세를 보면 충남이 천안이라든지 최근에 전력 다소비로 떠오르는 것이 영상IT예요. 충남의 전력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남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 기후 완화의 측면에서는 2가지의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기후변화에서 적응의 문제인데요. 아까 송박사님이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적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2°C가 달성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적응은 훨씬 더 중요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의외로 그동안 완화에 포커스를 두고 적응은 별로 관심이 없었던 말
이죠. 그런데 충남이 진짜 여기에 신경을 써야하는 할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지
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농업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는데 3농혁신이요. 농업이 가장 기후
적응에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농업이거든요. 왜냐하면 북방한계선이 달라지고 있기 때
문에 작물이 다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충남은 또 수산을 안고 있던 말이죠. 해양생태
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런거에서 충남은 적응 측면에서 농업수산물을 생각할 때 굉장히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의 한 축에 환경이 들어있어
요.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면서 조화를 이룰 것인가가 고민인데.. 환경에서 하신다면 특히 물
이야기가 많이 하시는데 물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하나 환경 측면에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것
은 2가지입니다. 아니 3가지 인데요.. 하나는 제가 아무래도 전력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충남에 화력발전이 몰려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이 많
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이게 피해가 어떻게 되는지.. 외국에서는 대기오염을 경로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그런데 아마 이런 것들은 중앙에선 못할 꺼예요. 한다
면 충남에서 이 문제를 연구해서 대기오염이 어떻게 확산되고 있고 이런 것을 연구하는.. 이
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축산 분
뇨문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활용을 한다하지만 지역특성마다 다 달라요. 축
산 분뇨 문제도 지역특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의 측면에서 이 문제도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수 있는 것이 특히 화력발전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제가
이인희박사님과 같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연구된 자료들이 없어요. 도대체 충남지역의 화력발전에서 엄청난 온배
수가 나오는데 해양생태계에,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꾸준히 연구
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 이런 것도 기후환경연구소에서 만약에 열
리게 된다면 한번 생각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충남지역에서 이러한 별도의
기후환경연구소가 출범하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반갑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비전 이 문제인데요 출범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을꺼라고 생각이됩니
다. 어쩔수 없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서 첫 번째로 열핏 생각입니다
만은 가능한 지역 단위에서의 환경변화를 모니터링 하는 이런 식으로 작업들을 꾸준히 해주
었으면 좋겠다. 예를들어 중앙에서 하지 않는 것들 말이죠, 충남지역에 지역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든지, 해양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든지, 화력발전에 의한 대기오염이 어
떻게 확산되고 있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앙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의 환
경변화의 어떤, 기온에 관계되든, 환경에 되든..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자료를 계속 축적
해 나가는 이런식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것인 것 같은데, 총발연이 연구정책 기능을 한단말이죠, 이것하고 연구소의 자료조
사라든지 또는 연구개발이라든지 이 양자의 역할분담을 어떻게 정확하게 하고 어떻게하면 시
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간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정 주제를 정해서 장기간 같이 자료를 축적하면서 연구를 한다든지 또는 어
떤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면 서로 co-work을 해서 연구소에서 모니터링을
해라 그리고 자료를 토대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자료를 써서 연구정책을 한다든지 등등
이런 양자간의 역할분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교수님 : 주어진 시간이 저희가 보니까 토론자가 여유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시간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전대학교에 있습니다만.. 주로 대기 기후쪽에 전공을 하고 있는데 충남도로써는 녹색성장포럼에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까 점심먹다 보니까 아직도 녹색성장이 있나 이런 말씀 하시던데 물론 녹색성장위원회나 녹색성장 포럼이 지난번 MB 정권의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고 현 정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쉽게 말해서 별로 무의미하니까 그냥 내버려둬라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법정기구로 계획이기 때문에 녹색성장위원회를 만들고 녹색성장 포럼이나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녹색성장 포럼을 맡아서 하는 것은 정부의 정권 차원의 정책과는 관계없이 무늬는 기구나 예산은 사용하되 내용적으로는 충남도의 녹색성장의 콘텐츠가 무엇인가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4년간 고민을 해 왔습니다. 오늘 내용의 상당부분이 녹색성장 포럼에서 다루어져 왔고 녹색성장의 지역의 기본 계획의 100여가지 사업을 분석하고 평가를 하고 그 중에서 20개 사업을 추려내서 그리고 오늘도 4시부터 있을 회의에서 내년부터는 4~5개 사업으로 구체화시켜서 실증을 하겠다는 단계까지 왔고요 그 가운데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설립에 대한 가능성, 타당성 이런 것들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도가 추진하는데에 여러 가지 백데이터도 제공을 하고 그 확신도 드리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토론을 맡게 되었는데.. 우선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두분의 발표를 듣고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비전이나 역할에 대해서 좀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저는 쉬는 시간에도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박주택사무처장님의 그동안의 노고에 상당히 감사를 먼저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지자체지역 차원에서 이런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이끌어 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나름대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발표하는 내용도 제가 들으니까 저희가 그리고 있었던 그림을 상당부분 그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지역차원에서 실천을 해 왔고 사실 포럼 위원 중에서 연구소 설립과 관련해서 가장 확신을 가졌던 사람은 접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게 된 그림 속에 많은 내용들이 이미 다 실천을 해 오셨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설립은 여러 가지 마지막에 고민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수익사업이라든가 어떻게 자립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 이야기를 드릴순 없지만 제 나름대로의 분석으로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 확신을 오늘 새롭게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강원도도 분석했고 광주도 분석하고 또 실제로 기타큐슈도 저희 위원들이 다 같이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때 자료나 내부적으로 워크숍으로 할 때 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의미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송센터장님 국가차원의 여러 가지 대응 잘 들었고요 이제 압축해서 정리를 하면..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당위성은 별도로 하고 한가지만 이제 서해안 연구소 출범과 관련해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저는 그 혜택의 대상은 최종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야되지 않을까.. 아까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연구소라고 이름지어서 만들었는데 과연 이것이 연구 조직이냐.. 저는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조직을 만들려고 하면 왜 만들어야 하냐는 거죠 기존의 연구조직 많이 있고요 국가조직도 연구조직이 있습니다. 지역에 이러한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연구조직의 성격은 되어서는 안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먼저 들고 그리고 국가에서도 사실 국가의 주요 구성요소가 국가가 해야될 일은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의 여러 가지 자료를 직접 가공하는 일은 되지만 국가의 구성요소도 지역이 하나의 국가의 구성요소다라는 의미에서 국가에서도 지역차원의 노력 이러한 것들을 조금더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내용

인데요.. 좌장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후환경연구소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해서 정확하게는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오늘 팀장님이 배경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름이 몇 번 바뀐 내역을 말씀 드렸는데 어쨌든 정해졌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생각은 해야할 것 같습니다. 기후와 기후변화는 엄연한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기후변화로 고민을 해 왔는데 마지막 기후환경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처음에 우리의 설립취지하고 컨셉 자체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가능하다면 반드시 고민하고 가야할 부분이 아닌가..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아마도 기후변화하고 물환경 이것을 통합을 하다보니 기후환경이 되었는데 사실 물환경이나 대기환경은 지금 전세계적으로 추세가 환경추세도 그렇고요 기후변화에 통합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기후변화 안에 사실은 물 환경이 포함되는 개념이지 기후환경하고 물 환경이 다른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후환경보다는 기후변화라는 표현이 어딘가는 성격을 규정하는데 적절하지 않는가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러한 고민 속에서 연구소라는 이름인데 기타큐슈에 가서 저는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타큐슈를 다녀와서 서해안에 이 조직에 대한 확신을 느꼈는데 연구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기타큐슈에.. 실증조직이었습니다. 저는 이름이 어쨌든 간에 그 성격은 이게 연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연구에 성찰을 실증하는 또는 테스트하는 기능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름이 사실 많은 것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이름이 상당부분 내용적인 면을 커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 합시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하지않는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좀 들어가서 저희 포럼에서 많은 것을 담아 왔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확신을 가졌다는 것은 충남도에는 많은 소스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업단지가 있고 발전소가 있고 농촌이 있고 해안이 있고 산림이 있고 이 만큼 기후변화를 기회요인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없다고 분석을 하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면은 기후변화에 대한 충남도의 노력은 엄청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쪽 썼습니다만 포럼에서 다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우리 강원도에서 사무처장님이 발표하신 내용에 상당부분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충남도가 지역 차원에서 뭔가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느냐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몇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90년대에 대전에 와서 충남도에 기회가 있을때마다 화력발전세를 왜 충남도가 못 받느냐..화력발전을 그렇게 가지고 있고 그 발전의 혜택을 수도권이 받고 있는데 화력발전세를 못 받은 것은 말이 안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어쨌든 제가 그렇게 되었다가 보다는 그런 노력의 산물로 올해부터 충남도가 화력발전세를 받습니다. 이름은 다른 이름인데 60억정도 되나요? 팀장님? (네) 60억 정도 매년 받고 있고 이 예산이 환경이나 녹색성장이나 기후변화에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화력발전만이 아닙니다. 충남도에 많은 송전탑의 환경갈등이 충남도민때문이라 아니라 전체의 어떠한 국가 발전을 위해서 희생 당하고 있다는 것.. 서산-대산에 산업단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지역에 혜택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세금이 될 것이고 또 충남도가 이러한 소스들을 뭔가 기금으로 활용을 한다면은 저희는 강원도도 일부 농촌이나 여러 가지 자원을 리소스 가지고 있지만은 충남도는 위협의 요인이 기회가 될 수 있는 리소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강조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CDM(???) 틀은 아니지 않

습니까? 저는 지역 CDM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은 국가가 기후변화에 위해하는 곳에서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하는 그 지역, 또는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 그러한 지역 CDM, 소위 말하는 도시 CDM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가 지역에 얼마나 여러 가지 노력을 지원한다면은 사실 지역 차원에서 센터나 활동을 하기에 조금의 수익적인 측면에서 고민이 줄어들지 않을까하는 고민을 해 왔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여기서 조금 줄이겠습니다.

정희성 이사장님 :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들립니다.)

장동호 교수님 : 저는 박사학위 논문으로 학위를 대기환경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기후환경 연구소를 세운다고 해서 제 전공하고 너무나 똑같은 것을 충남에서 만들게 되어서 참 고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용적인 부분에서 설립목적 이런것들을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기후환경과 조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연구소든 작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제목에서 연구소가 어떤 사업 목적을 갖고 있고 기능이 어떤 것인지를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 기능이나 역할이나 목적을 보면 명확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제목이 달라졌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조금있다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물환경연구소 같은 경우는 사실 오염총량제 제가 알기로는 수질 오염 쪽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그 부서하고 내용적으로 목적을 보면은 기후환경 연구소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이질적인 두 개의 부서라고 그러냐요 부서가 두 개가 합쳐져서 연구소를 만들게 되면 기후 점 환경도 아니고 기후환경이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면 단순히 대기의 환경변화라든가 이러한 것을 연구하는 연구소로 파악이 되고 실제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기후변화에 관련된 내용들을 포커스로 담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그래서 제목에 대한 연구에 대한 작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좀 해주셔야 해야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나와있는 것 중에서 역할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저도 KEI에서 오셨지만 환경정책평가원하고 제일 이질적인 집단들이 국립환경과학원, 그리고 최근에 생긴 생태원, 이 세가지 집단들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서로 중복성들이 많이 겹친 실제로 여기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를 만들었을 때 총발연하고의 업무 분담에서의 그런 문제점들이 대두될 수 있는데요.. 초기에 KEI에는 국가의 정책, 환경정책이나 이러한 쪽에 분명 포커스를 맞추었고, 과학원에서는 주로 현장조사나 연구쪽에 포커서를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생태원이 만들어지면서 모든 조사가 생태원으로 모두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학원에서 할 일이 없어지다보니까 이제 정책쪽에 오히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가다 보니까 KEI하고 과학원하고 업무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발생해서 서로 자기 영역이 어디까지냐를 가지고 분쟁이, 겉으로 보이지 않는 문제이지만 외부적으로 그러한 분쟁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과학원에 자문을 하면서 여러번 목격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총발연하고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가 만들어진다면 상위기관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였는데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업무적인 부분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총발연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역할 분담이 반드시 사전에 조율이 이루어져야만 그러한 문제들이 겹치지 않고 과제가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기능이나 역할을 보면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대책 등을 위한 조사 연구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현장 중심의 어떤 연구 쪽으로 가고 총발연 같은 경우는 정책이나 지역단위의 어떤 정책개발 쪽에 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할이나 업무 분담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제목과 관련된 내용 중에 하나 더 언급을 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기후변화와 관련된 연구 소라고 하는데 서해안이란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사실 충남도에서 제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뚱맞게 서해안이 들어가서 서해안만 하자는 것인지 주로 해안에 포커스를 맞춘 것인지 하지만 분명히 충남에도 산지와 여러 가지 산업단지라든가 분야별 여러 가지 우리가 기후변화 취약성이나 영향 평가나 적응방안을 이야기할 때 분야별 이렇게 논의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서해안이라는 한정된 부분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면 내포 문화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금강문화권에 있는 분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이질적인 감을 느낄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목을 하실 때 왜 서해안이란 표현을 썼는지 서해안이라고 하면 당연히 해안 쪽에다가 연안과 해안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고민을 좀더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야별 평가에서 어떤 취약성이라는 분야하고 적응성 또는 대응방안이란 측면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연구소들은 주로 취약성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충발연 쪽은 적응이나 대응방안의 어떤 논리 쪽으로 나가는 것이 좀 더 효과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남정호 박사님 :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게 아마 아마도 향후에 충발연에 새로운 기후와 환경에 관련해서 센터 이상이 두가지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판단, 생각이 되구요 두가지 사례발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다만 장동호교수님 말씀처럼 처음에 연구소 명칭을 보고 먼저 떠올렸거든요. 항상 모든 것은 형용모순이 되면 안 되잖아요, 형식과 내용이 참 조화를 이루어져야 하는데 서해안과 기후와 환경이란 세가지 단어가 연구소가 들어가있구요, 내용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수질환경 총량관리 쪽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목적을 보게되면 또 기후란 내용이 들어가있고 또 연안과 해양의 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이란 말이 또 들어가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통상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표현을 쓰는 건데 지속가능한 보전이란 말이 들어 있어서 맞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장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해안에는 아마 내부적으로 충청이라고 쓰려고 하셨다가 이러한 특색이 없으니까 서해안으로 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명칭과 내용에 형용모순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로 들더라고요.. 바꿀 수 있다면 조금더 반영되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연구소라는 명칭 때문에 연구기능이 주가 될 것처럼 되는데 김선태교수님이나 아니면 강원도 사례를 보게 되면 사실은 수탁기능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가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야 재원확보나 조직 자체의 지속성들도 담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되는 건데, 저는 그 판단은 충발연하고 충남도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연구기능 위주로 갈것이나 아니면은 그런 정부의 행정의 성격의 수탁사업을 확보하면서 하는 관리사업단으로 갈까냐 아마 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들어 관리사업단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의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환경공단 사업들이 주관이 될 것이고요 연구로 가게 되면 환경과학원이나 아니면 KEI 쪽으로 가게 될텐데.. 충발연이 또 정책연구소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다면은 연구기능이 이리로 가게 되면은 KEI 쪽으로 가게 될 것 같고 사업단위로 가게 되면은 환경공단의 사업들을 기후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게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명칭과 사업내용과 그것이 같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이게 새로운 지역차원에서 기후와 환경과 관련된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만들 때에는 국제운영과 국내운영을 살펴봐야 하는 거잖아요. 국제적으로는 머 기후, 환경, 생태 그리고 기후와 생태, CBD 평창에서 COP 12가 열리고 하는 건데 그와 관련해서 기후변화, 환경, 생태다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는데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예전에는 리우회의 이후부터 한 20년 동안은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굉장히 강조되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재해가 발생하고 기후변화가 발생하게되니까 아~ 환경적 지속가능성도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이제는 사회 경제적 지속가능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환경보전도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사회 경제적으로 사람을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들, 보호장치든, 아니면 지원장치든.. 그것이 필요한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저희 연안쪽 연구하는 팀들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인제 국제사회에서 바뀌게 되는 동향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사회경제적 지속성이 왜 중요하게 되었냐하면 사후 태풍의 발생 빈도가 사실은 앞으로 약 5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 예기는 결국은 재해가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그래서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한 기후변화 연구가 중요하다 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서해안 쪽에서 더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나 하면은 태풍의 경로가 과연 남해안을 걸쳐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갔는데 언제부턴가 서해안쪽으로 올라와서 서해안 옆구리를 치고 발생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더 이러한 재해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레질리언스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다.. 이게 충남도 입장에서 본다면 바뀌게 된 하나의 동향일 것, 역할일 것 같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는 지금 국가정책으로 본다면.. 저는 해양과 연안쪽으로 말씀 드리면 통합관리 계획이 만들어져 있고 연안관리지역계획도 만들어야 하고요 연안정비기본계획은 지금 올해 연내에 침식방지를 목적으로 한 해안보전 사업을 위주로 한 정비계획도 올해 안에 수립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 침식관리 구역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아마도 충남에도 침식관리 구역제도가 진행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내동향이거든요.. 그래서 해양쪽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담은.. 총발연을 담아낼 수 있게냐 아니면 별도의 조직을 통해서 담아낼 수 있겠나라고 하는 게 제가 파악하고 있는 동향인 것 같고요.. 여기에 비춰봤을 때는 저는 앞으로 기후연구소 관련해서 더 많은 얘기가 논의가 되어야 하겠지만은 일단 이 기후연구소에 관한 포지션이 무엇인가를 따져봤어요.. 포지션을 매트릭스로 짜봤는데.. 예를들면은 국내 관계, 대내외관계.. 대내관계는 총발연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대학, 산업체, 또 연구기관, 또는 행정기관도 포함되어 있겠죠.. 이러한 대내관계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대외관계는 중앙정부, 국제기구를 포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로를 현재와 미래로 보고.. 가로로 대내와 대외로 보고 그렇게 되면 현재의 시점에서 대내와 대외의 포지션이 나올 것 같고요.. 여기에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을까에 따라서 아마 미래 전략이 다르게 나올 것 같은데.. 저는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당장에서는 다른 연구소와 다른 지역차원에서 이런 기후변화연구소와 똑같은 형태로 복제품을 만들 필요는 없다..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앙정부 또는 국가 정책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충남도 입장에서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만을 추려서 그것에만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스타 프로젝트를 세 개에서 네 개정도만 분야별로 발굴해서 중점적으로 집중육성한다면 그 성과에 따라서 아마 미래에 어떤 포지션도 달라지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거기까지만 일단 말씀 드리고요 나중에 또 다른 이야기 나오면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성 이사장님 : 네 감사합니다. 태풍이 왜 충청도를 강타하는지... (잘 안 들림). 정연앙박

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정연양 정책연구위원님 :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얼마전부터 여기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가 그 처음에 워크숍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후환경연구소의 비전과 역할, 기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 할 꺼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여러 토론자께서 얘기하신 제목과 기관의 성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하신 그 내용들을 토대로 다시 정립을 하실 것으로 보고 저는 본래 워크숍의 얘기나온 기능과 비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있었는데.. 총발연과 서해안환경연구소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총발연은 정책 발전, 정책 개발 이러한 기능을 가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아까 설명한 바에 의하면 산하기관이라는 그 역할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총발연의 정책 보조창고로서의 기후변화에 관련된, 특히 분야에서의 정책자료라든가 소관된 일들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기후변화라는 측면을 가지고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가 해야할 일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라고 하면 첫 번째로 적응하고 완화, 대응 이 분야를 많이들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또 오랜기간 동안 기상부분들, 대기공학부분들을 접해왔기 때문에 그 분야들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의 커다란 하나의 큰 축이 기후변화 과학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후변화의 예측과 감시, 그것을 기후변화의 과학이라고 하고 그 다음이 파트2가 기후변화의 완화, 적응, 대응 이런 분야로 나가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의 과학의 큰 축은 역시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측과 감시 이런 부분들은 기상청이라든가 국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시와 변화의 일들을 하게 되지만 지역적으로 과연 손 놓고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즉 기후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은 해야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정량적일수도 있고 경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구소에 꼭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할수 있다라기보다는 ??(잘 안들림) 이러한 부분, 기능들에 대한 자료 취합이라든가 보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가 가지고 있다면은 총발연에 대한 정책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또 국가적으로 볼때에 어떠한 좋은 충남 지역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의 과학분야는 그렇게 연구소의 기능으로 봐 줄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적응과 대응에 대해서는 역시 아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서해안이라는 용어가 갖는 한계성 때문에 어떻게 이것들을 풀어나가야 하느냐..하는 부분들은 여러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더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충남지역을 이렇게 보면은 저도 크게는 굉장히 다양한 기후특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변산과 당진, 서산, 보령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 서안지역이 있고요.. 홍성, 아산, 천안 등의 산악의 풍상 ?? 지역들이 있고, 그 다음에 비교적 산악지역에 속하는 청양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여, 공주, 논산, 청주, 세종시 등 주로 하천을 따라 평야 지대에 속하는 도시 내륙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지역적인 환경을 지니고 있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미 서해안 종합개발계획인가요? 거기에 보니까 4대 영역권으로써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잘 분류를 하였던다고요. 천수만 금강변 생태공원 주변지역이라든가, 또 충남 내륙권내에 하천인접지역,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류들을 이미 파악을 해 놓고 지역적으로 개발해야할 부분, 분야도 해놓았기 때문에 각각의 그러한 분야, 그러한 지역에 대한 기후학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과 특성에 대한 부분들도 또 정보를 연구정보, 연구결과를 제공해 주는 것들은 상당

히 연구소가 가져야할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가지는 이제 연구소의 역할로써는 좀 만약에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와서 있는데 이것은 여기 연구소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상청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계, 연구소 모든 연구기관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상당히 많은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필요한 자료들도 있고 정보들도 있지만은 또 생산해 놓는 out put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더라도 지역과도 지역적인 관심 분야에서 필요한 정보와 자료 등은 다 취합해서 어느정도는 가질 수 있는, 즉 어떤 지역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연구소로써.. 연구를 필요로하는 학계라든가 또는 어떠한 주변 기관들이 이 연구소와 함께 co-work를 한다든가 또는 정보를 요구를 했을 때 그러한 자료 정보들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한다면은 연구소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특히 기후 대기 환경.. 상당히 복잡적입니다. 대기와 해양, 지면, 생태계, 다 복합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만 가지고 연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서 되도록이면 융합해서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누가 어떤 기관이 중점이 되어서 적어도 그것들을 기획하고 주관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의 연구소의 기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즉 충남지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복합적, 다양한 기후 연구들을 융합해서 할 수 있는 한두가지 또는 서너가지를 융합할 수가 있게 하는 그 기능에 대한 총괄기관으로써의 역할 기능을 해준다면 상당히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그러한 기능을 계속 보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연구소가 운영되고 명성을 얻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희성 이사장님 : 네 잘들었습니다. 김선태교수님이 지적한 사항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명칭, 업무 등인 것 같아요. 조례가 통과되어 이름이 바뀌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잘 안 들림).. 말씀해 주시지요.

한창동 팀장님 : 조례사항으로는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라는 명칭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전혀 고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라는 명칭을 갖게 된 경위는 당초이름은 서해안기후변화대응센터이었습니다. 처음 별도의 법인일 때는 서해안기후변화대응센터의 명칭이 아무 상관이 없었으나 인력확보, 재정확충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하여 충남발전연구원 소속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는 기존 센터가 있으며, 센터는 충남발전연구원의 조직상 부의 하위 개념입니다. 그러나 연구소의 위상은 부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곤란하며, 의회, 정책실 등에서 센터가 너무 많아 통합해 나가야하는 상황에 또 센터를 만드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연구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산하로 기후변화센터로 들어갑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는 별도의 센터로 가고, 기존의 물환경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양 센터를 모으는 상위의 개념이 연구소라는 명칭을 지은 것입니다. 서해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이유는 기후환경연구소를 건립하게 된 당초의 취지가 현재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한국기후변화센터가 강원권을 커버할 수 있는 기후환경연구 조직이었습니다. 중앙에서는 강원권, 영남권, 호남권, 서해안권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광주에는 호남권, 부산에는 영남권을 대표하는 연구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남, 충북, 대전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인천이나 전북 일부까지 포함할 수 있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서해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서해안은 어떤 지리적인 명칭이 아닌 인문학적 차원에서 명칭을 지은 것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기후환경 등 현실

적으로 접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충남발전연구원과 연구하고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보니 분명 더 고민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연앙 정책연구위원님 : 서해안이 서해안의 국지적인 용어가 아니라 서해안이 갖는 포괄적인 의미로써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을 정한 사람이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면 괜 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찬동 팀장님 : 최근에는 도지사님께서 서해안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서해안은 서해안 바다 연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강 수계 등을 포함한 서해안의 큰 범위를 넓게 생각하여 표현한 비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가미가 된 것이 있습니다.

이인희 연구위원 :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만드는 것 때문에 가장 황당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연구가 완전히 겹치기 때문에 이 연구원 가치에 대해서 초반에 얘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도에서 저한테 질문이 왔었을 때는 중복이 되느냐하였고 중복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연구부서에 기후변화 인원을 늘리고 싶었는데 지방연구원의 재정형편상 도저히 불가능하여 위촉연구원들과 기후변화 일을 했습니다.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가 또 만들어지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통과되어져서 만들어지는데 과연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구체적인 금액은 말씀해주시지 않았지만 재원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재원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창한 일들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연구원과 센터라는 조직에 대해서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센터는 도에서 특수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고, 연구원에서 위탁하여 운영을 해주는 것입니다. 센터의 재원은 도에서 나옵니다. 회계가 연구원의 회계와 별도의 회계를 가지고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연구소가 부 이상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도에서 연구원의 조직에 왈가왈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 처음부터 얘기가 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기 식으로 되니까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역할 분담의 경우에는 환경복지국장님과 저희 원장님이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역할 분담을 하였습니다. 정책연구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연구소는 모니터링, 조사 쪽으로 큰 틀에서 어느 정도 논의하였습니다. 개원될 때까지 계속 업무논의가 되어야겠지만 지금 업무협의회가 만들어 졌는데 처음입니다. 업무협의회를 좀 더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얘기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러한 쪽으로 도에서도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희성 이사장님 :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기 조직이 어떤지 발표한 것이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가 어떻게 발표한 것이 아닙니다. 의견을 좀 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영일 센터장님 : 네 오늘 토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올 때 이게 기후환경연구소가 이제 이 안에 그 저한테 보내 주신 공문을 보면 기후환경연구소 내에 이제 기후환경,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를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를 앞으로 만들고 운영하는데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됐고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일을 설명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명칭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썼는데

요, 오늘 논의의 포커스가 기후변화연구센터라고 가정했을 때 생각이 든게 뭐냐면은,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라고 한다면 앞서 정연양연구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과학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기후변화대응센터라고 한다면은 업무가 과학분야 그리고 감축분야, 적응분야 다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다 포괄하고 가져갈 것인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할 경우에 예산도 사실 뭐 적은 예산이 들 것 같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업무가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이 어찌피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져야 한다면 현재 할 수 있는 일부러 좀 뭔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로드맵을 만들어서 앞으로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 준비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구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적응 업무를 하다보니까 지자체에서 이 적응계획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세우는 중이고 법적으로 세워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환경부에서 이거 정책을 빨리 드라이브 걸어서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지금 법이 만들어 졌고 그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에서는 이런 적응대책 세울 때 누군가 좀 도와주고 같이해 주기를 굉장히 바라는 것 같거든요? 그러한 당장에 해야될 일부러 먼저 업무로 진행하는 게 어떨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구요. 또 하나는 지자체 업무를 저희가 지금 지원하다보니까 자료가 굉장히 없는 것을 느꼈습니다. 적응대책을 걸 세우려고 해도 특히 읍면동 같은 경우는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취약성 평가 자체가 안 될 수 도 있고 그러한 상태에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기초자료 확보부터 시작한다든지, 앞서 토론하신 분들 환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내용을 일단 엮어서 먼저 업무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전제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기후변화 기존에 업무하시던 조직이 있는데 어느정도 좀 구분이 되어서 중복문제가 좀 피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는 좀 간단히 봤어요 그러니까 충남발전연구원이 있고, 여기 이 조직 안에서 센터가 만들어 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5년전으로 거슬러올라갔을 때, 저희 KEI가 있고, 당시 법에서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를 만든다라는 것이 법이 만들어 졌고 그 법에 따라서 그러면 그 센터를 어디다 둘 것이냐 라는 정부부처 간의 논의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 센터를 KEI 안에다 설립한다 라고 해서 지금 센터는 저희 그 KEI의 하나의 조직, 부서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연구계획 같은 것을 할 때는 다른 부서와 같이 좀 어느정도 균형있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은 중복문제도 좀 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드는 느낌은 뭐냐면은 충남발전연구원 안에 만드는데 별도의 조직으로 만드는데 그런건가요?

한찬동 팀장님 : 별도는 아니고 부설조직..

이인희 연구위원 : 아셔야 되는데요, 센터는 회계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회계가 다르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센터는 도의 특수 목적, 아까 물환경연구센터가 나왔지만 물환경연구가 붙었지만 사실은 오염총량관리 센터였거든요. 그래서 오염총량관리제만 하기위해서 만든 별도의 센터였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원 정규 직원이 아니구요, 그러니까 이게 센터와 센터의 개념을 다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센터는 도의 조직인데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조직이라는 걸 아시고...

정희성 이사장님 : 그 관계는 이제 이렇게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조직을 만들 때 조직에 센터를 두건 산하 연구소를 두건 부를 두건 여러 가지 방법을 갈 수 있습니다. 아까 이박사님

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로는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의 센터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게 연구원 밑에 센터를 두고, 연구소를 두고 그러면 일단은 돈은 연구소에게로 쥐가지고 연구소 회계 내에서 관리가 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센터이기 때문에 독립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직상에 그런건 없는데, 이 충남도가 연구소 운영이 좀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구요, 그것은 도의 방침이고, 도의 정치결정자들이 하고 있어서 그런건데요, 원래 정상적인, 법적으로 정상적인 조직이라는 것은 센터를 만들건 연구소를 만들건 산하조직을 이루게 되면은 그 돈을 일단 쥐가지고 충남발전연구원 조직의 회계 통합회계로 주고 그 목적에 따라서 회계를 쓰게 되거든요? 인사나 조직관리도 상당부분의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원장의 권한 하에 움직이게끔 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정상인데 아까 조직도나 이런 것을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그게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뒤쪽으로 한번 충청도에서 나중에 검토할 사항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뭐 뭐라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찬동 팀장님 :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된 상태니까요 실무적으로 고민해볼 상황인 것 같습니다.

[01:04:00] 간단한 질문인데요, 내년도 혹시 예산이 되어있나요? 얼마 정도? 이박사님이 많지 않다고 해서..

한찬동 팀장님 : 출현금이라고 해서 원래 기존에충남발전연구원에 들어가는 출현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후환경연구소가 건립됨으로 해서 내년도에, 1차년도에는 이제 예산이 조금 더 소요되기 때문에 4억 5천 정도, 또 다음해 부터는 3억 5천 정도, 출현금이 나올 예정이고, 물환경센터에 기존에 나오던 돈이 2억정도, 출현금이 나오구요, 더 나아가서는 가능하다고 하면 타부서와 협의될 사항이지만은 김선태교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01:04:47] 1년의 예산이 4억 5천...?

한찬동팀장님 : 네 그러니까 지금 첫 해에는 저희가 인원을 15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연구소장도 아까 강원도처럼 처음에는 겸직하는 형태로 나가고 공무원들을 파견하는 형태, 기존 인력들을 활용하는 형태로 해서 최소한의 자금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정희성 이사장님 : 그러면 박주택 소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자유토론을 하도록 하죠.

박주택 사무처장님 :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거는 서해안기후연구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저희 센터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센터는 연구하고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결국은 인제 연구 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결국은 충남발전연구원과 어떻게 차별화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럽거든요. 그래서 계속 앞으로 중복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의회라든가 이런데서 똑같은 질문이 계속 나올 겁니다. 이미 방향

은 정해졌는데 그러면 충남발전연구원과 역할분담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또 차별성을 가지고 해나갈 것인가, 아마 지금 고려하셔야 될 게, 기존의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하던 식의 연구만 가지고는 이 기관이 존재가치가 과연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하고 하시면 될 것 같구요, 아직까지는 비전이라든가 역할, 방향성이 확실하게 정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 같은데, 제일 우선적으로 방향성 정립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참고적으로 강원도 사례를 한번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도 강원발전연구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강원발전연구원 건물에 같이 있는데 강원발전연구원도 저희 센터가 생기기 전에 기후변화연구센터가 있었어요, 있었고, 저희 센터가 생긴 이후에 한 1년간 그 센터가 존재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강원발전연구원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저희 센터도 연구를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가 결국은 나중에 한 1년 지나고 나서 강발연에서 기후변화연구센터를 폐지를 했죠. 폐지를 했지만은 크게 보면은 적응파트를 보면은 지금은 강발연에서 분야가 사실 여러 부분에 걸쳐있기 때문에 적응에 관련한 연구를 강발연에서 계속하고 있어요, 다만 저희는 강발연하고 비교했을 때, 지자체 기후변화적응대책이라든가 세부시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저희가 다 하고 있고, 또 완화파트는 사실 강발연에서는 거의 이제 손을 못대고 있지만은 저희가 완화파트에서도 연구뿐만 아니고 실질적인 사업까지도, 사업 대안까지도 제시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인제 그 지금 와서 보면은 강발연하고 저희는 분명하게 차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가 충남발전연구원하고 확실하게 차별성을 갖는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센터를 오늘 소개를 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성 이사장님 : 네, 고맙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 같아요, 조직 하나 만든다는 게 저는 사실은 ???라고 들어와가지고 새로 만든 조직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것을 경험하면서 조직변화도 겪어봤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조직의 장도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조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전들이 상당히 만만치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조직원들이 잘 현명하게 한다면은 좋은 기회도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선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라는 것이 지금 당장은 충남발전연구원의 환경, 기후 조직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느낌도 좀 있고, 그런 점에서는 아쉬운 면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또 충남발전연구원이 이것을 개기로 해서 좀 더 확장조직이 되는 그런 것, 다만 그것을 서로에게 화학적으로 융합해서 발전하도록 해주느냐, 아니면은 그야말로 갈등관계를 만들어가지고 서로의 포텐셜을 잡아먹는 관계로 만드느냐, 이것이 굉장히 과제인 것 같아요. 부부가 결혼하면 결혼해가지고 훨씬 더 이렇게 돈도 잘 벌고 잘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끝өг가면서 두사람이 다 포텐셜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한 것들이 나중에 연구소를 정식출범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토론한 것 중에서 혹시 또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면 잠깐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김선태교수님 : 저는 이런 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이런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알고자하는 의미에서 토론을 하는 것이고, 또 모든 입장에 대해서 일을 해나가는 여러 가지 상황논리가 있는 것이고, 또 모든 주장이 다 담길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토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는 있었습디다만 또 거기 나름대로 상위논리를 듣고보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서해안도 저는 익스큐즈 될 것 같고 기후환경 속에서 기후대응센터, 물환경센터
를 통합하는 바람에 기후환경연구소, 이렇게 이름이 됐다는 것도, 기후환경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저는 그 물론 뭐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다 받아지리라 그런 생각은 안합니다
만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 사무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연구기능이 되어서는 안되
지 않는가, 연구기능이라는 것은 저도 연구자의 한 사람입니다만 연구를 우리가 포기하고 연
구를 무시하자 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이 연구의 최종목표도 역시 국민이고 주민이고 이래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일을 하고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 확인해야 될 것이 이 일이 또는 이 조직이, 이 사업이
주민의 어떤 이익을 염두해 두고 있는가 이런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
작되었기에 또 한번 되돌아 봤을 때 과연 이 기후변화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 새로운 조직을
하나 만들고, 새로운 연구기능을 만든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좁게는 충남
도민, 넓게는 지구 전체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한다는 부분, 이 부분은 다
시 한 번 짚어가야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구소라는
이름을 쓰던 센터를 쓰던 뭐 그건 상관없다, 상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논리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것이 지역의 어떠한 다른 차원의
차별화된 그리고 자립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구도로서 가야된다, 그것을 가기위해서 과도
기적으로 저도 들은 것이 충발연의 계속 조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과도기 적으로 어
느 정도 인큐베이터 역할로써 충발연에 있다가 나중에는 자립해서 운영한다 라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실제로 그렇게 되야한다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좀
더 항상 그리고 초심으로 봐야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를 강조하고 싶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제가 도에 같이 일을 해보니까 충남도가 행정적으로 굉장히 유연한 면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적정기술도 정부에서 맨 먼저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하고, 이 조직을 만드는데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고 한건데 이 이름이나 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또 유연하게 대응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년도에 시작을 앞두고, 뭐 시작하고나서 논의를 하는
것보다도 오늘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
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니라면 워크샵 형태라도 계속 이렇게 해 나가면서 부족한 부
분을 채워나가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국
가에서도 또 많이 봐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송영일센터장님 : 예. 김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서해안기후환경연구
소가 거의 만들어져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기능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저희 센터의 업무
를 말씀드리면 만드는 것 자체가 국가에서 만든 정책을 뿌리내리고 전파하여야 하기 때문에
연구만을 해서는 안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연구해서는 안된다가 아니라 연구만 해서는 안 된
다고 듣기 때문에 연구합니다. 동기개발, 톨개발을 당연히 하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지자체
에 적응시켜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연구하고 연구를 확산하는 기능을 추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르는 환경과 정책적 평가가 함께 있는 것이 이상하기는
합니다. 이것은 정책평가연구원하면 정책평가연구, 환경정책을 평가하는 연구원이라는 오해를
받기 때문에 환경정책 점 평가는 환경정책과 환경평가라는 두 개의 의미를 위하여 점을 넣습
니다. 요즘 모든 환경 분야가 기후변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후환경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
기후환경연구소라는 명칭에서 물환경까지 생각해도 어렵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명칭이
아주 중요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장동호교수님 : 저도 지금 기상청의 과제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미래상세기후 관련된 기후 변화시나리오 풍력쪽을 맡아서 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은 기온과 강수 자료들을 만드는 사업을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전국단위의 자료를 만드는 것은 연구소라든가 기상 연구소 등 국가단위에서 있는데, 12.5km의 자료를 만듭니다. 12.5km 자료는 지역단위의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충남에서도 500m나 1km짜리를 만들어서 기후변화시나리오를 지역단위로 만든다면 거기에 대한 취약성이나 적응평가를 하는데 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러한 지역단위의 기후환경연구소가 반드시 만들어진다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정호박사님 : 팀장님이나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듣고 충남도의 지방사업에 대한 규정을 보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물환경센터를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위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후환경연구소는 향후 위탁받아서 하겠다는 것이고, 충남발전연구원이 운영비를 받아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기후변화나 환경과 관련된 연구의 업무 중 복에 관련된 것인데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지션을 꼭 작성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책하는 쪽에서는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에 포지션 맵을 정하면 할 일이 딱 규명이 됩니다. 그래서 대외, 내외, 현재 할일, 미래 할일이 구분이 되어서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 정리가 됩니다. 포지션 맵이 없기 때문에 모든 분이 헛갈려하고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맵만 작성되고 나면 이후에 부설로 갔다가 독립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후 문제는 포지션 맵을 작성하고 논의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희성 이사장님 : 네, 고맙습니다. 혹시 다른 분? 충분히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보면은 이 토론에는 어떤 결론, 합의를 도출한다기 보다는 내년도 상반기 출발이니까 이 조직에 관련되어 논의가 될만한 것들을 추려내서 논의를 들어보고, 다듬어보자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도청의 한팀장님, 잘 좀 그것을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하나 정리한다는 것 보다는 몇가지 제 경험에 비추어서 제가 토론한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부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이 조직이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에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우려하는 것은 충남발전과 연구소와의 관계를 어떻게 기능이나 이런 것을 할 것인가, 또 하나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중간에 깊이있게 토론하셔야 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업무 범위에 관한 문제인데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그러면은 송박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후변화 완화가 있고 적응이 있고 두가지로 크게 나뉘어져 있는, 아니면 완화와 적응 두가지를 통합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충남도 관점에서 보면 이 기능에서 크게 물과 묶여가지고 물환경하고 관련해서 이 부분이 장황하게 가거든요, 그런데 따져보면 그것은 적응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이 토론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대기오염문제, 화력발전소, 에너지의 문제, 이것들은 또 완화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적응하고 완화 관계를 포괄하는 식으로 업무를 잡으면은 이 연구소가 또 뒤에 환경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도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기후변화환경연구소 그러는데 물만을 강조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 충남도 특성에 비칠 때 그 점을 참고해서 고민해 보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법인에서 기상청의 의뢰를 받아서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기후변화 상세정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치단체를 조사해보면 기후변화문제가 중앙에서 그렇게 떠들어도 자치단체 실무자들이 아는 것은 별로 없어요. 저희가 교육을 시켜도 그렇고 자료 해도 그렇고 사실상 정부가 그렇게 떠드는데도 정책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아니면 도도 마찬가지로 것 같은데요, 기후변화 문제가 정책이 반영되어 운영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없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연구소가 만들어지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점은 교육을 시키고, 정보를 취합하는 것, 특히 정책결정을 하는 공무원들의 교육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그것에 더해서 이 기후변화의 내용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환경 아닌 다른 분야들이 이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환경은 이미 알기 때문에 농업하시는 분들, 산업 정책하시는 분들, 토지이용계 아니면, 도로 교통하는 분들이 이 문제가 어떤 것이다.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그런 것은 또 안되어있어요, 연구소가 그런 인식을 비전을 가지고 한다면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열핏 도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구소가 그냥 발전연구원에서 인큐베이션해서 독립한다, 이렇게 되면은 잘 안 될 것입니다. 독립적인 조직으로 총발연에 쥘서 이것을 키워서 총발연을 키운다, 이런 식으로 비전을 가져야지 연구소가 빨리 안정을 하고 성장을 하지, 조금 키워서.. 그런 것들은 조금 정책적으로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총발연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그런 조직들을 가지는 것 보다는 조사, 기술개발 하는 쪽하고 정책 연구하는 쪽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KEI 처음 만들 때 있었는데만은 과학원이 있고, KEI가 있고 조직이 커져서 그렇습니다만은 어떻게 따져보면 KEI와 과학원이 같은 조직에서 일을 하면은 훨씬 더 좋은 연구를 할 수 있겠다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 과학적인 정보와 정책 정보들이 서로 왔다갔다하면서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교류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사실 대부분 이중으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직을 구상하실 때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원양정책연구위원 : 잠깐 제가 더 붙이자면 아까 송박사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전국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적인 모니터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모델이 크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지역 내에서 그러한 정보들을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나온 수많은 기획과 계획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모델을 평가할 수 있고 관측할 수 있고, 증빙할 수 있는 지역 모니터링. 기후변화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역할들이 상당히 요구됩니다. 이 연구소에 수많은 연구들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모니터링을 직접 하기 보다 농촌기술연구원, 센터 등 각 연구기관의 자료를 가지고 연구소에 이름으로 나가고, 충남의 어떠한 기관으로 나간다면 그런 데이터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의 인력으로 기금으로 매치매칭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희성 이사장님 : 거기에 더해서 자원문제와 에너지세, 화력발전소 관련 세금 자원, 총량규제를 보고 수질개선부담금 그 재원을 욕심내는 게 아닌가 짐작을 해봅니다. 맞습니까.

충남도청 팀장님 : 지역자원 시설세가 올해부터 징수되기 시작하는데요. 1년 징수세액을 170

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지방 시. 군과 함께 써야하기 때문에 아까 김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50~60억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너지 관련 분야, 신재생에너지, 화력발전소 피해대책, 주민환경복지 쪽으로 쓸 수 있도록 특별세가 됩니다. 그 부분이 확정되면은 아마 기후환경연구소라던지, 기후변화 쪽으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정희성 이사장님 : 그래서 그런 재원이 안정적으로 된다면, 조직이 안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질총량도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계관리기금이라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 돈을 내려 쓸 수 있나요.

충남도청 팀장님 : 관계부서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희성 이사장님 : 환경부에서 하지만, 환경부의 수계관리기금에 금강수계나 적응대책을 하는데 쓰겠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금이 많기 때문에.

충남도청 팀장님 : 금강 수계관리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부족한 예산에 도비를 가지고 물환경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금강청에 요구를 하는 것이 수계기금으로 끌어와 재원을 더 확보하기 위하여 물환경센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희성 이사장님 : 그렇다고 하면, 기능에 있어서 물만을 강조하지 마시고, 대기, 완화까지 포함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혜정박사님 :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부적인 것들을 논의하다기 보다는 의견을 많이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교정들은 그 나중에 애기고, 비전이나 역할이 그려져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가감 없이 의견을 많이 듣기를 원했었고,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운영에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무려 4시간동안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향후에 여기에 모이신 인력풀들은 지속적으로 저희와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